이주민의 문화 적응과 우울, 조절자로서 차별과 차별의 진원을 통한 탐색

최혜지, 이혜연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연구 제67집 2023년 2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67, Feb 2023, pp. 223~242
https://doi.org/10.17924/solc.2023.67.223

이주민의 문화 적응과 우울, 조절자로서 차별과 차별의 진원을 통한 탐색*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주제분류 사회복지, 사회조사, 문화 다양성

주제어 다문화, 이주민, 문화 적응, 차별, 우울

요약문 이 연구는 이주민의 우울에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미치는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화 적응이 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차별의 조절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이주민 우울의 문제를 문화 적응이라는 이주민 개인의 쟁점이자 책임으로 조명한 선행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차별을 가족 등 일차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차별과 이차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차별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이주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한국 이주민의 특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2018년 원자료를 분석했으며, 배우자가 있는 14,899명 이주민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차별은 이주민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적 차별의 영향력이 사회적 차별보다 높았다. 또한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 모두 문화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 모두 차별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문화 적응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의 함의에서는 사적 및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개선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을 받음
** 주저자
*** 공동저자

Ⅰ. 서론

안락한 삶에 대한 열망은 인간이 지닌 공통된 속성 중 하나이다. 일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낯선 곳, 즉 장소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장소를 공유한 개인들은 세대에 걸쳐 유사한 규범, 가치, 언어, 생활양식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태어나고 자란 출신국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 이주한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언어, 가치, 생활양식에 노출되고 이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벗어나기 어렵다.

문화 적응의 과정은 이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결혼, 노동, 학업 등 이주의 원인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높은 비율이 불안감,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는 문화적 차이에 배태된 부정적 정서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출신국과 이주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이주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과정과 결과는 차이가 크다.

선행연구는 이주민이 경험하는 불안, 우울의 부정적 정서를 주로 연령, 출신국에서의 교육 수준,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등 이주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문화 적응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나란볼락·유금란, 2021). 그런데 개인적 특성과 문화 적응을 통해 이주민의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이와 같은 접근은 정신적 안녕이든 또는 정신적 고통이든, 문제의 원인을 이주민 개인에게 회귀시킨다는 점에서 시각적 한계를 분명히 한다.

문화 적응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접촉하고, 이주문화와 토착문화가 충돌하는 역동적 과정이므로 선주민과 토착문화가 이주민과 이주문화에 어느 정도 수용적이거나 또는 차별적인가에 종속된다. 이주민의 심리,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를 선주민이 얼마나 존중하거나, 차별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주민의 수고는 덜어지거나 또는 더해지기도 한다(최혜지, 2009; 최혜지, 2019). 예컨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은 이주민을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고 주변화하는 반면, 문화적 차이에 개방적인 태도는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Berry, 1997).

따라서 이주민의 부정적 정서를 토착문화, 선주민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이주민 개인의 특성과 문화 적응만으로 설명해 온 선행연구는 문화 적응을 이주민이 통제하는 일방향적 과정으로 왜곡하고, 선주민과 토착문화라는 외부 체계의 간섭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해 불안, 우울의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신적 안녕을 이루는 책임이 이주민 개인에게 부여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의 대상 또한 이주민으로 표적화되는 오류를 낳는다.

제기된 선행연구의 한계는 이주민의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데 선주민과 토착문화가 이주민과 문화적 차이를 대하는 차별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차별을 단서로 이주민의 삶을 설명하려 한 선행연구는 차별의 출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한계를 갖는다. 외국의 경우, 이주가 주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민 가족원은 동일한 민족적 배경과 문화를 공유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주민의 문화 적응과 차별을

다룬 국외 연구는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개인 단위의 이주가 지배적인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주민 개인이 선주민 가족에 이식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최혜지, 2019) 가족은 이주민을 차별하는 주요 진원이기도 하다(조선주 · 안주희, 2020). 따라서 이주민 차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가족 등 일차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차별, 이차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 등 차별의 출처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이주민을 향한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이주민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차별이 이주민의 문화 적응과 우울 사이의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가설 1 : 이주민의 문화 적응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문화 적응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진다.

연구가설 2 : 차별은 이주민의 문화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여 문화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Ⅱ. 문헌 검토

1. 문화 적응

1) 개념과 유형

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조건을 주어진 환경과 조화시켜가는 주체적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 적응이란 언어, 규범 등 자신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주변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맞추어 변화시켜가는 과정과 결과를 뜻한다(박종철 외, 1996).

문화 적응을 새로운 문화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습득했는가로 설명하는 일방향적 관점의 한계에 따라 문화 적응을 다양한 문화 간 접촉과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쌍방향적 관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사실 낯선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한 이주민은 출신국의 원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국의 토착문화를 습득하여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 적응의 과정을 겪는다(Redfield et al., 1936). 원문화와 토착문화가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은 원문화를 유지하거나 상실하고, 토착문화를 수용하거나 또는 거부한다.

Berry에 의하면, 원문화의 유지 수준과 토착문화의 수용 정도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 적응은 네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된다. 먼저 원문화를 유지하면서 토착문화에도 수용적이면 통합적인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킨다. 반면 원문화를 상실하고 토착문화 또한 거부하면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주변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원문화는 유지하지만 토착문화를 거부하면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배제적 문화정체성을 갖는다. 끝으로 원문화는 상실하고 토착문화를 수용하게 되면 토착문화에 흡수되는 동화적 문화 적응 상태에 이른다(Berry, 1997).

2) 이주민의 문화 적응과 우울

이주민에게 선주민의 토착문화는 출신국의 원문화와 다른 것, 즉 차이로 경험된다. 행동 양식, 사회적 규범, 가치관 등 생활양식으로 포괄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유사한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강한 인지적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토착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이주민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속하며, 문화 적응의 과제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따라 이주민의 삶은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기준, 관습 및 규범 등 토착문화와 원문화 사이에 차이가 크고 갈등적일수록 이주민은 이주국의 주류 사회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김오남, 2007). 노동 윤리, 동료 및 고용주와의 관계 양식 등 한국인에게 익숙한 직장 문화가 이주노동자에게 낯설고, 낯선 것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가부장적인 문화, 시댁과의 종속적 관계 등 출신국과 다른 한국 문화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고, 문화적 차이는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킨다(김연수, 2013; 이혜경, 2005).

언어의 한계,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토착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이주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원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에 차이가 크고, 토착문화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주변의 요구도가 높을 때 우울, 불안 등 이주민의 심리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Bhugra, 2004). 중국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몽골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문화적 차이에 적응적일수록 이주민은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13; 김후조, 2011; 나란볼락 · 유금란, 2021). 이와 같이 문화적 차이와 우울 사이의 영향관계는 이주민의 출신국이나 이주 이유와 관계없이 이주민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2. 차별

1) 개념과 유형

차별이란 한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 역사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어 왔다(Krieger, 1999). 흔히 고정관념, 편견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차별은 개념적으로 고정관념, 편견과 엄격히 구분된다. 고정관념은 특정 대상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사진처럼 떠오르는 이미지를 일컫는 것으로 인지적 반응에 속한다. 편견은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 경험 없이 어떤 개인이 속한 집단을 준거로 그(녀)

를 향해 일어나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다. 이에 반해 차별은 '차이'를 이유로 동등한 대상을 평등하지 않게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뜻한다(Marger, 2003).

차별은 행위의 주체나 발생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된다. 개인과 개인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차별,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차별, 국가의 제도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적 차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차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차별, 사회적 조직이나 기관 혹은 보다 공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로 분류될 수 있다(Krieger, 1999).

차별은 가하는 주체와 당하는 객체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매개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최혜지, 2019). 차별을 가하는 주체는 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을 지닌 지배 집단인 반면, 차별을 당하는 대상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취약 집단에 속해 있다(최혜지, 2019).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성별, 계급 등 취약성을 야기하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여성으로서, 이주민으로서, 저소득자로서 교차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이주민을 향한 차별은 특히 인종, 민족,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사회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이 선주민과 동일하게 보장되지 못하거나, 이주민의 원문화를 존중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이주민을 향한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점에 따라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차별에 대한 문화적 관점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선주민과 다른 언어, 생활양식, 규범과 가치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김한성 · 이유신, 2013; 양경은 · 박송이, 2021). 선주민과 다른 이주민의 외모, 언어 등은 토착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위협으로 인지되고, 이주민을 향한 선주민의 차별로 연결된다. 선주민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주민에게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언행을 취하고,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상적 관계에서 이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최혜지, 2019).

한편 구조적 관점은 이민제도, 법, 사회제도, 인종주의 등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 이주민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김정선, 2011; 양경은 · 박송이, 2021).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제도는 선주민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계기가 없으면 꾸준히 강화되고 구조화된다. 그러나 차별은 미시적 차원에서 인지되는 문화적 차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거시적 차원의 어느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다양한 차원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2) 이주민의 차별과 우울

외모, 언어 등에서 관찰되는 이주민의 차이는 종종 선주민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이유가 된다.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 자녀 중 39%는 다른 외모, 서툰 한국어로 인해 선주민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배상률 · 고은혜, 2016, 양경은 · 박송이, 2021에서 재인용).

차별은 당하는 사람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낯선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적 경험은 이주민의 희망을 손상하고 무력감을 높여 우울감을 유발한다(Moris, 2000; 나란볼락 · 유금란, 2021에서 재인용). 차별의 피해자는 주로 인구,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박탈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의 경험은 성별, 민족, 소득 등의 취약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우울, 자살사고 등의 위험을 높인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주민으로부터 당하는 차별은 이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구차순, 2007; 김오남, 2007; 김선숙 외, 2020). 차별의 경험은 청소년 이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소외감을 높였으며(양경은 · 박송이, 2021), 다문화 가정 자녀는 차별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과 불안감이 증가했다(강초록 · 조영태, 2012).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차별 받은 경험은 우울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초록 · 조영태, 2012). 이주노동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차별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의 우울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숙, 2006; 나란볼락 · 유금란, 2021).

그런데 이주민의 차별과 심리, 정서적 안녕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일부는 차별이 오히려 개인의 정신적 안녕감을 높인다고 주장한다(강초록 · 조영태, 2012). 이주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개인은 문화 적응의 과정을 지나게 되고, 이때 문화 적응의 수준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개인은 곧 문화 적응의 수준이 높고, 문화 적응이 높을수록 정신적 안녕감이 높기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더 긍정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강초록 · 조영태, 2012). 이주민이 경험하는 문화 적응과 차별, 차별과 정서적 안녕감 사이의 이와 같은 영향 관계는 차별에 대한 경험이 문화 적응과 우울 사이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우울의 개념 및 영향 요인

우울은 개인의 정신적 안녕이나 어려움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우울은 활력, 동기, 삶에 대한 의욕 등이 낮아지고 무력감, 절망감이 증가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우울의 임상학적 진단이나 우울감은 주로 침체되거나 우울하다는 느낌, 특별한 이유 없이 밀려드는 슬픔을 주요한 증상으로 판단된다(양옥경 외, 2010). 따라서 얼마나 우울하거나 슬프다는 정서적 상태를 경험했는가를 묻는 것은 우울의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어떤 요인이 이주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한 연구는 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이주 관련 요인, 적응 관련 요인에 집중한다. 이주민이 성별이 우울과 어떤 영향 관계를 갖는가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주장이 교차한다.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남성의 2배 정도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Cheng et al., 1999; 양옥경 외, 2010). 이주민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를 이룬다(양옥경 · 김연수, 2007; 이선웅 외, 2009). 반면 성별에 따라 이주민의 우울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병존있다(한인영, 2001; 양옥경 외, 2010).

연령과 이민자의 우울 사이의 관계 또한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어릴수록 원문화 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토착문화에 수용적이며 문화적 차이에 유연하기 때문에 우울이 높지 않다는 주장과 오히려 이민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 또한 높다는 주장이 혼재한다(권구영 · 박근우, 2007; 양옥경 외, 2010). 교육 수준과 이민자의 우울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 또한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주민의 우울 정도는 교육 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이주민의 우울감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공존한다(이선웅 외, 2009; 양옥경 외, 2010). 반면, 경제적 수준과 우울 사이의 영향 관계는 이주민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외, 2010).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한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되었다. 분석자료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2018년 원자료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규모나 신뢰도 면에서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 2009년 이후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21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1년 조사의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접근 가능한 최신 자료인 2018년 자료를 분석했다. 해당 자료의 수집은 전문 조사원이 수행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7,550 가구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연구는 배우자가 있는 14,899명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료를 분석했다[1].

2.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우울

우울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측정했다. 해당 질문은 우울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측정 도구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질문이다. 응답은 그런 적 없다를 1점, 매우 자주 느꼈다를 4점으로 한

1) 문화 적응을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측정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이민자로 제한했다.

리커트형 척도로 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문화 적응

문화 적응은 이주민 응답자가 인지하는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측정했다. 지난 1년 동안 배우자와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용했으며, 전혀 느낀 적 없다를 1점, 매우 자주 느꼈다를 4점으로 한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했다. 높은 점수가 높은 문화 적응 수준 즉 배우자와 낮은 빈도의 문화적 차이를 의미하도록 원 문항을 역점수화 했다.

3) 조절변수: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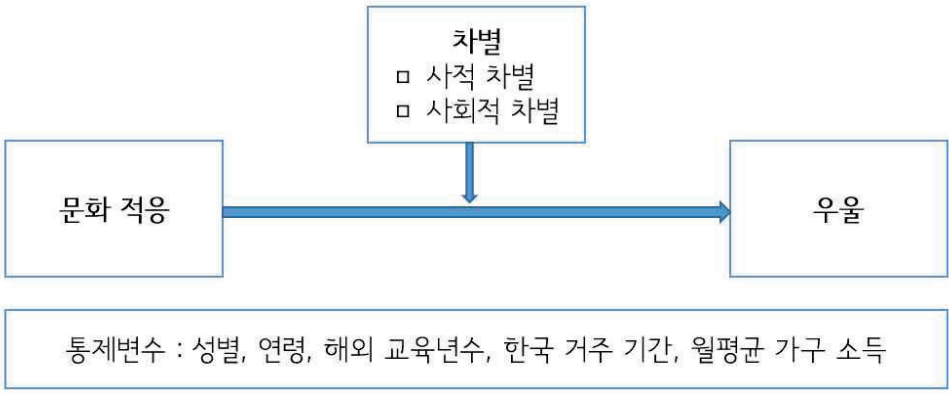
차별은 가족이나 친척 등 일차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차별, 공공장소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차별로 분리해 측정했다. 사적 차별은 집에서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용했다. 사회적 차별은 거리나 동네, 상점 등, 공공기관, 직장 및 일터,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가? 라는 5개의 질문을 이용했다.

응답은 매우 차별을 받았다를 0점,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를 3점으로 한 리커트형 4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사회적 차별은 5개 질문의 총합으로 점수화 했다. 높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차별을 의미하도록 역점수화 해서 총합을 산출했다.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 계수가 0.58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이주민의 문화 적응, 차별, 그리고 우울 사이의 영향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그림 1>과 같이 상정했다.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조작화 된 이주민의 문화 적응 정도는 우울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주민이 가족으로부터 당한 사적 차별과 공공의 장소와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차별은 문화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의 수준에 따라 문화 적응과 우울 사이의 영향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이주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폭넓게 논의되어온 성별, 연령, 해외에서의 교육년수, 한국 거주 기간, 월평균 가구 소득은 통제 변인으로 투입했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차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 적응과 사적 차별의 상호작용 변수, 문화 적응과 사회적 차별의 상호작용 변수를 생산해 회귀모형에 투입했다. 그 외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는 기술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산출했다. 분석에는 spss 통계 패키지 ver.21을 사용했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성은 18.2%, 여성은 81.8%로 여성의 구성비가 매우 높았다. 평균 연령은 39.63세이며 10대가 0.1%, 20대가 16.9%, 30대가 39.5%, 40대가 26.4%, 50대 이상이 17.1%를 차지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교육을 받은 평균년수는 11.43년이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11.95년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민자는 82.7%, 기타 귀화자가 17.3%에 달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조사대상자는 62.1%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21.0%,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이 64.7%, 500만원 이상이 14.3%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14,899	100.00		
성별	남	2,718	18.2	-	-
	여	12,181	81.8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14,899	100.00		
연령	10대 이하	9	0.1	39.63	11.00
	20대	2,525	16.9		
	30대	5,889	39.5		
	40대	3,929	26.4		
	50대 이상	2,547	17.1		
한국 입국 전 교육 년수		-	-	11.43	3.78
한국 거주 기간		-	-	11.95	8.21
귀화 여부	결혼이민자	12,326	82.7	-	-
	기타귀화자	2,573	17.3	-	-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28	21.0	-	-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634	64.7	-	-
	500만원 이상	2,136	14.3	-	-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이주민의 우울은 평균 1.32(sd=0.59), 조절변수인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의 평균은 각각 0.08(sd=0.34), 2.30(sd=3.58), 독립변수인 문화 적응은 평균 3.29(sd=0.74)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우울	14,899	1.00	4.00	1.32	.586
사적 차별	14,899	0.00	3.00	.078	.335
사회적 차별	14,899	0.00	20.00	2.30	3.58
문화 적응	14,899	1.00	4.00	3.29	.74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은 문화 적응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사적 차별 및 사회적 차별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 적응은 사적 차별 및 사회적 차별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의 경험이 높을수록 문화 적응의 수준은 낮아졌다. 사적 차별은 사회적 차별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일차적 관계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많은 이주민은 이차적 관계에서도 차별의 경험이 높았다.

<표 3>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구분	우울	문화 적응	사적 차별	사회적 차별
우울	1			
문화 적응	-.202**	1		
사적 차별	.184**	-.198**	1	
사회적 차별	.188**	-.247**	.403**	1

*p<.05*p<.01**p<.001****

3. 문화 적응과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모델 1은 문화 적응, 사적 차별, 사회적 차별이 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적 차별(b=.15, t=6.38)과 사회적 차별(b=.01, t=5.58)은 이주민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사적 차별이 사회적 차별보다 높았다. 그러나 문화 적응이 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민의 성별, 연령, 해외 교육 년수, 한국 거주 기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모델 2에서도 사적 차별(b=.12, t=5.51)과 사회적 차별(b=.02, t=9.35)이 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문화 적응은 통제 변인을 투입한 상태에서는 이주민의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8, t=-7.88). 문화 적응의 정도가 높은 즉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끼는 이주민일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 적응과 차별의 상호작용 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델 3에서는 사적 차별(b=.25, t=3.68)이 우울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반면 사회적 차별(b=-.00, t=-.20)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b=-.09, t=-7.62).

통제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모델 2와 모델 3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일 때, 연령이 높을수록, 해외에서의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이주민의 우울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표 4> 문화 적응과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B	t	b.	B	t	b.	B	t
(상수)	3.013	-	85.082	3.787	-	68.702***	3.745	-	63.428***
문화 적응	.011	.010	1.131	-.077	-.064	-7.878***	-.089	-.075	-7.619***
사적 차별	.150	.057	6.377***	.121	.046	5.510***	.253	.097	3.676***
사회적 차별	.012	.051	5.580***	.019	.080	9.346***	-.002	-.007	-.204
문화 적응 *사적 차별							-.046	-.049	-1.925*
문화 적응 *사회적 차별							.007	.087	2.539*
성별+				.175	.077	9.469***	.175	.077	9.498***
연령				.030	.377	41.289***	.030	.377	41.287***
해외 교육년수				-.019	-.080	-10.091***	-.019	-.081	-10.106***
거주기간				-.002	-.020	-2.130*	-.002	-.019	-2.025*
월평균 가구소득				-.013	-.024	-3.135**	-.013	-.024	-3.166**
모형	Adjusted R^2= .008 F= 39.062, p= .000			Adjusted R^2= .140 F= 305.085, p= .000			Adjusted R^2= .141 F= 244.897, p= .000		

*p<.05 *p<.01 **p<.001 ***

+ 더미변수 : 기준집단 남성

4. 문화 적응과 우울의 영향 관계에서 차별의 조절 효과

모델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적 차별(b=-.05, t=-1.93)과 사회적 차별(b=.01 t=2.54)은 문화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차별의 조절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적 차별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해 문화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분석했다. 사적 차별은 응답자의 93.9%가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평균값이 0.78로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사적 차별의 변량을 고려해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차별 무경험자와 차별을 가끔 또는 매우 자주 받았다는 차별 유경험자로 구분해 문화 적응과 우울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는 13,966명에서는 문화 적응과 우울 사이의 영향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931명에서는 문화 적응이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문화 적응의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은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10 t=-2.95). 이는 일차적 관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이민자는 문화적으로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반면 일차적 관계에서 차별의 경험이 높은 이민자는 문화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울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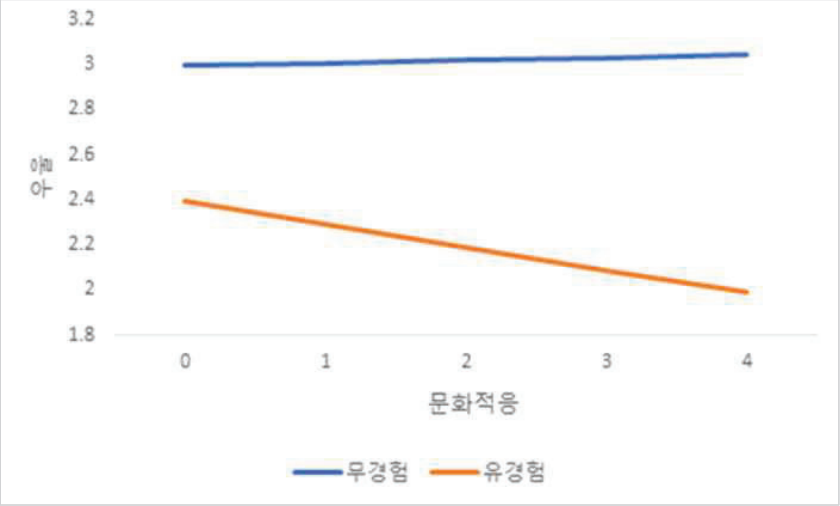
사회적 차별은 68.7%가 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 무경험자에 해당해 사적 차별 보다 차별의 유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차별의 변량을 고려해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는 무경험 집단, 사회적 차별의 점수가 높은 상위 10%를 사회적 차별의 고경험 집단, 그 외에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으나 경험의 정도가 상위 10% 보다 낮은 경우를 사회적 차별의 중경험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문화 적응과 우울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차별 고경험 집단에서는 문화 적응(b=-.06 t=-2.07)이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 무경험 집단과 중경험 집단에서는 문화 적응과 우울 사이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지지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정도가 매우 높은 이주민 집단에서만 우울이 문화 적응의 정도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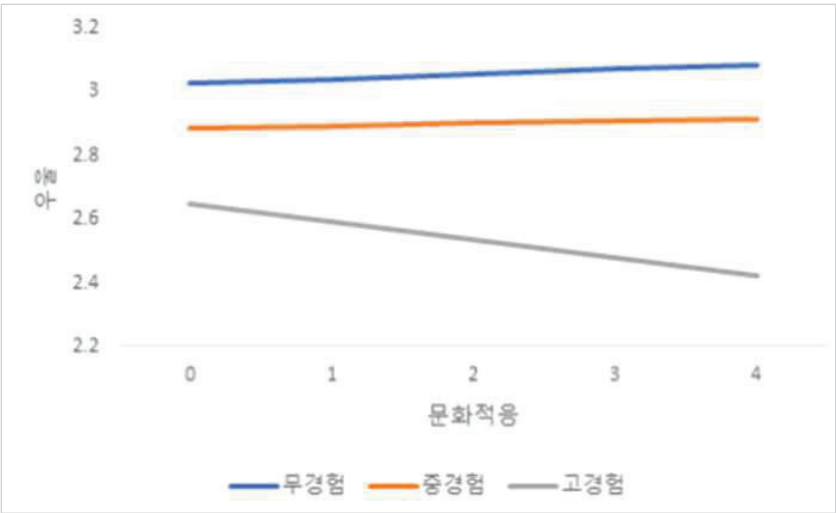
<표 5> 문화 적응과 우울의 영향 관계에서 차별의 조절 효과

변수		문화 적응			모형
		b.	B	t	
사적 차별	무경험	.012	.009	1.113	Adjusted R^2=.000 F= 1.238 p=.266
	유경험	-.102	-.096	-2.952**	Adjusted R^2=.008 F= 8.712, p=.003
사회적 차별	무경험	.015	.012	1.191	Adjusted R^2=.000 F= 1.148, p=.234
	중경험	.007	.006	.346	Adjusted R^2=.000 F= .120, p=.729
	고경험	-.057	-.051	-2.076***	Adjusted R^2=.002 F= 4.308, p=.038

p<.05 p<.01** p<.001****



<그림 2> 사적 차별의 조절 효과



<그림 3> 사회적 차별의 조절 효과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이주민의 우울에 문화 적응과 차별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으며 특히 차별의 조절 효과에 주목했다. 문화 적응이 우울을 비롯한 이주민의 삶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에 근거해 문화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주민의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문화 적응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삶을 분석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은 이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민이 토착문화를 습득하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이주민이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를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

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문화 적응은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일방향으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주민이 지켜온 토착문화와 이주민이 수반한 이주문화의 접촉은 두 문화 모두에 충격과 운동성을 발생시키고, 충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문화 상호 간에 투입, 수용, 거부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Berry, 1997). 물론 지배적 위치에 있는 토착문화의 구심력이 이주문화의 원심력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선주민의 문화적 개방성에 따라 두 문화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는 선주민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이주문화에 대한 수용성 등에 종속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이주민의 우울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에 문화 적응과 함께 이주민을 향한 차별을 포함하여 이주민, 이주문화에 대한 선주민의 수용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낮은 정도의 문화 적응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유의미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사이의 정적인 영향 관계를 주장한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했다(김형준, 2017; 김선숙 외, 2020; 김오남, 2017; 안미영 · 송지현, 2017). 또한 이 연구는 일차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차별, 이차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 모두 이주민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유학생,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등 다양한 이주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결과와 일치한다.

차별이 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차적 관계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차별보다 가족 등의 일차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차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사적 차별은 가족 단위의 이주가 보편적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주의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적 차별에 더해 사적 관계에서까지 차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한국 이주민의 배가 된 어려움을 시사한다.

한편 문화 적응과 우울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문화 적응의 수준이 높을수록 차별을 민감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인지된 차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또한 양호하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반박한다. 더불어 문화 적응, 차별, 정신건강 사이의 영향 관계는 차별의 조절 효과를 고려해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사적, 사회적 차별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 한해 문화 적응이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문화 적응 수준이 낮은 이주민을 사적,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문화적 차이가 우울이라는 정신적 고통으로 연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적 및 사회적으로 차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문화 적응의 수준 또한 낮은 이주민은 우울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한다.

차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며, 이때 힘의 불균형은 주로 선주민과 이주민, 토착문화와 이주문화 사이의 권력 구조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주민의 문화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더불어 이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사적 및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개선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구차순, 2007,「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 20: 319-359.

강초록 · 조영태, 2012,「사회적 차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성 · 연령 · 경제상황에 따른 차별인지 중심으로」,『한국치안행정논집』, 18(3): 73-95.

김선숙 · 고대영 · 김혜원 · 조요셉 · 최성은 · 민기채, 2020,「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사회과학연구』, 31(3): 59-78.

김영미, 2020,「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가족돌봄 차별금지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한국노년학』, 36(1): 1-26.

김오남, 2007,「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가족복지학』, 12(3): 47-73.

김욱, 2003,「노인차별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한국노년학』, 23(2): 21-35.

김형준, 2017,「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구영 · 박근우, 2007,「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사회연구』, 14(2): 187-219.

김한성 · 이유신, 2013,「결혼이주여성의 삶의만족도」,『한국사회학』, 47(2): 177-209.

김일호 · 천희란, 2015,「노인차별과 그 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지역 비교」,『한국노년학』, 35(2): 433-450.

나란볼락 · 유금란, 2021,「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35-49.

박건, 2014,「모욕과 무시경험의 차별유형화에 대한 연구 - 입법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4(3): 87-123.

박순호, 2016,「대구 · 경북지역의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168-179.

박종철 · 김영윤 · 이우영, 1996,『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박준호 · 성용은, 2021,「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변용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한국치안행정논집』, 18(3): 73-95.

안미영 · 송지현, 2017,「제주 정착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 국내 이주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여성학연구』, 27(2): 43-65.

양경은 · 박송이, 2021,「이주민에 대한 '상징적 폭력'과 차별: 이주민 밀집지역 내 중도입국 자녀 부모의 경험 분석」,『현대사회와 다문화』, 11(3): 39-66.

양옥경 · 김연수, 2007,「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현대사회와 다문화』, 26: 79-110.

양옥경 · 박향경 · 손가현, 2010,「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141-175.

이선웅 · 김규상 · 김태균 · 류행우 · 이미영 · 원용림 · 송윤희, 2009,「경기지역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와 우울 증상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1(1):76-86.

이지연 · 그레이스정, 2013,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36-362.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임수진 · 오수성 · 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 광주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8-528.

전상남 · 신학진, 2009,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4): 1383-1396.

조선주 · 안주희, 2020,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5(2): 69-103.

조예신 · 김진열, 2017, 「재한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변용을 매개로-」, 『동아시아문화연구』, 69: 125-154.

천희란 · 김일호, 2013, 「노인차별(ageism)의 사회경제적 관련요인과 건강영향」, 『한국노년학』, 33(3): 601-615.

최인이, 2009, 「유통 서비스업 여성빕정규직 노동의 성격과 차별 양상에 대한 연구: 백화점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1): 89-129.

최현미 · 윤명숙, 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29(3): 119-142.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최혜지, 2019, 『이주민의 사회적배제: 세대 간 전이와 민족 계급화를 중심으로』, 집문당.

최혜지 · 원영희 · 이혜연, 2019, 「노인 학대와 차별에 기초한 잠재계층 유형과 노인 자살생각, 『한국노년학』, 41(5): 927-945.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68.

Bhugra, 2004, "Migration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 67-72.

Cheng, T., A, Chang and J, Chen, 1999,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2): 150-161.

Krieger, N., 1999,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2): 295-352.

Lim Hyun Sung, 2018, "The Impact of Acculturation Types on Quality of Life Among Migrant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27: 115-131.

Marger, M., 2003, *Race and ethnic relations: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Redfield, R., R. Linton., and M. J. Herskovits.,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apt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of Immigrants

Choi, Hyeji
(Seoul Women's University)
Lee, Hye youn
(Seoul Women's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Social Survey, Cultural diversity

Key words Multiculture, Immigration, Cultural Adaptation, Discrimination, Depression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rivate and social discrimination on the depression of migrants. By paying attention to the moderating effect of discrimination that controls the impact of cultural adaptation on the depression of migrants, the study ai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at portray migrants' depression issues as migrants' individual issues and responsibilities of cultural adaptation. The study also emphasizes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s in Korea who migrate on an individual basis, not on a family basis, by dividing discrimination into private discrimination between families and social discrimination by the public. The study analyzed the 2018 raw data from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and the data of 14,899 migrants with spouses. Analysis shows that discrimin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ression of migrants and that the influence of private discrimination was greater than that of social discrimination. In addition, both private and social discrimination were found to control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on depression, and cultural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nly in groups with high levels of discrimination in both private and social discrimination.

접 수 일 : 2023년 1월 3일
심사완료일 : 2023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월 19일